

# Wendy L. Widder 박사, Daniel, 세션 16, 다니엘 10-12장,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 2024 Wendy Widder 및 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6회기, 다니엘 10-12장,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를 다루며 다니엘서 연구를 마무리합니다.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이다. 그것은 긴 단원이고 매우 상세하며 실제 계시는 1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장은 모두 다니엘이 계시를 듣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12장은 에필로그와 함께 그리는 내용이 많지만 문학적 단위이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읽고 공부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경험한 마지막 환상적 경험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데, 지금쯤이면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계시를 정리하는 데에는 많은 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신구약 중간 역사의 기본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1장은 이에 대해 명시적이지 않은 많은 세부 사항을 가져올 것이며, 제가 아는 최고의 리소스, 즉 해당 기간에 읽을 수 있는 리소스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훌륭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사후 예언의 문제로 다시 데려가는데, 우리가 11장에서 그것이 질문이 되는 지점에 구체적으로 도달할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인 이 마지막 환상은 9장과 같이 상징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돌연변이 생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석이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당신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천사 같은 인물이나 신성한 인물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계시나 깨달음을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다.

세부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다니엘에게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 책의 클라이막스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게 될 이 기간을 넘어 마침내 고통 받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보상인 부활을 약속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며, 압제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전이 향하는 곳입니다.

이 장은 7장, 8장, 9장의 비전을 생각나게 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8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에이미 메릴 윌리스(Amy Merrill Willis)는 그녀가 출판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다니엘 8장의 비전이 일종의 기본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 비전은 각 세부 사항이나 각 문제를 취하여 더 자세히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좀 더 세밀한 역사 서술이자 8장에는 없었던 완전히 해결된 결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8장을 기억한다면 나는 그것을 일종의 인색한 위로 또는 인색한 격려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악을 묶어두셨다는 사실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끝날 것이다. 그것이 격려였습니다.

글쎄요, 이 환상에서는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억압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해결에 도달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개요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은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고 듣고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서문 자료입니다. 11장 전체와 12장의 두 구절은 실제 계시이고, 그런 다음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정리합니다.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말해야 하는 몇 가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당황스러운 숫자 집합.

그러니 잠시만요. 좋습니다. 이 글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를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한 부분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섹션을 읽고, 내용을 설명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니엘은 하늘의 사자에 대한 환상을 보고 1절부터 시작하여 시공간 관련 내용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설명을 설정하는 서사적 소개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나타났으니 그 말이 참되고 큰 싸움이 있었으나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레스 왕 제3년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포고령이 내려진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36년쯤 되니 9장의 환상이 나타난 후 약 2~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 기초는 놓였으나 그 때에는 온갖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복원은 이미 첫 번째 장애물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보게 될 다니엘의 환상은 아마도 고국에서 회복이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환상은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있을 것임을 그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갈등이 닥쳐올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에서 다니엘은 말하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 곧 고레스 제삼년에 나 다니엘은 삼 주 동안 애통하고 있었더라.

나는 3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넣지 않았고, 어떤 연고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은 시공간 참조를 얻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꽤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는 매우 약해서 실제로 그가 이 계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해설자는 말하지 않으며, 다니엘은 자신이 금식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향의 복원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애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다. 4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니엘은 사람이나 사람과 같은 자의 출현을 보고합니다. 첫째 달 24일은 구체적이라 내가 큰 강 히데그리스 가에 있을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가는 벼락을 입은 한 사람이 있더라,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몸도 녹주석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타오르는 햇불 같았습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구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의 소리는 소란스러운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이 환상은 나 다니엘만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남겨져 이 큰 환상을 보았지만 내 안에는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내 원래 피부색은 죽음처럼 창백해졌고, 나는 힘을 전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 말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공의 연속이 있다. 참고로 이 날짜는 첫째 달 24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다니엘이 애도하는 기간이 실제로 유대인의 유월절과 겹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일반적으로 그러한 절기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유가 무엇이든, 금식과 기도 에 대한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이 연례 축하 절기를 생략하는 것은 그에게 충분히 중요했습니다.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다니엘이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유월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며,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실행 가능한 설명이자 매우 좋은 설명입니다. 그가 그레이트 강 옆에 있다고 말하고 그 곳이 티그리스라고 명시합니다. 그것을 명시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큰 강은 대개 유프라테스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바빌론 밖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가 왜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퇴각 중일까요? 그는 공무상 출장이나 출장을 가나요?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이 환상에서 그는 실제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무아지경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은 이것이 가브리엘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서 가브리엘을 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질문은, 우리가 가브리엘을 알고 있는데 왜 그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전에 나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질문은,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세 번째 본 것이라면 다니엘이 가브리엘에게 정말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색을 잃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천사 같은 존재에 대한 꽤 과감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은 여기 이 장에서 읽기를 중단한다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과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여기서는 번개 모양의 얼굴과 눈에 햇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윤이 나는 청동,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정말 신의 현현처럼 들립니다. 신의 출현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일 수도 있고, 성육신 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작가나 학자들이 갖는 주요 반대 의견은 천사, 즉 천사가 아닌 이 존재가 내 생각에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은 신현(theophany)이다. 그러나 이 존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가 왜 늦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에 여기 왔어야 했는데, 페르시아 왕자가 나를 억류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는 70일 동안 나를 막아섰고, 나는 마이클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내가 신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해설자로서 정말 존경하는 트럼퍼 롱먼은 우리의 첫 번째 총동은 이것이 신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한 주된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는 무슨 세력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처럼 21일 동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느냐고 말합니다.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좌절시키시는 것을 정말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다음 스티븐 밀러는 이 언어, 즉 좌절의 언어가 신에게 적용될 때 부적절하다고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존재도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존중할 수 있지만, 그러한 투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지 그토록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초자연적인 세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해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갖고 있는 약간의 정보를 고려할 때, 하늘의 투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을 제가 감히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출현 사이의 투쟁이라면, 하나님 자신이나 주님의 천사 사이의 투쟁이라면, 그것이 극복해야 할 일종의 신성한 투쟁이라면 그것은 다음의 첫 번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종류가 있어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여호와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루가 끝날 무렵 천사가 야곱의 다리를 만지고 그게 끝이라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글쎄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신현(theophany)처럼 들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현(Theophany)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실제로 천상의 투쟁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니엘만이 이것을 본다. 그의 동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남자, 그가 그를 부르는 그 남자가 말을 시작하자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5절까지에서 그 존재인 사람은 그가 계시를 받도록 준비시키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는 손길과 격려의 말을 줍니다.

보라, 한 손이나 한 손이 내게 닿았고 내 손과 무릎을 떨게 하였느니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존경하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네게 보내심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한 뒤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것을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으므로 대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 환상은 장래의 일임이니라. 그가 이 말로 나에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말을 못하게 되었더니 따라서 이것은 강렬하고 엄중하며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몇 가지 강화의 행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손이 그를 만져 손과 무릎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그에게 똑바로 일어서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성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지체, 즉 그가 지각한 것은 그가 부주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주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 왕자가 그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미가엘이 도움을 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존재와 영적 전쟁에 관해 내가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성경 자체에는 확실한 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신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개념은 고대 근동 지역과 심지어 성경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강의에서 우리가 신의 회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두머리 신, 즉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는 야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신성한 의회의 경우, 엘은 영토를 신성한 존재의 다른 계층에 할당하고 그들이 담당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영토를 할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을 책임지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미가엘은 다니엘 백성의 방백이자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제2성전 문헌에서 대천사로 식별됩니다. 그는 신들 중에서 권세를 가진 자이다. 구약성서에서 그가 이름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곳은 이곳이다.

신약성서에서 그는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 흥미로운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가브리엘과 미카엘은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두 천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메시지의 목적을 말했고, 그것이 그의 백성을 위해 아직 오지 않은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 표현에서 우리는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에서 종말론적인 암시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암시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볼 때, 천사가 계시에서 말할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별도의 끝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말에 또다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서 그는 두 번째로 가능하게 하는 접촉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라, 사람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만지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통이 이르렀나이다 나는 힘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내 주님의 종이 어떻게 내 주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숨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 같은 이가 자기 입술을 만진다고 보고합니다. 이사야가 입술을 만졌던 이사야서 6장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화를 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이 닿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니엘은 반드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시를 받는 데 있어 일종의 강화되는 일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힘이 사라졌다고 말할 만큼의 힘을 얻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그는 세 번째로 가능하게 하는 접촉을 얻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한 이 분이 다시 나를 만져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존귀한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용기를 갖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 그가 내게 말씀하시매 내가 힘을 얻어 이르되 내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사오니 말씀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인간 창조물 인간과 유사한 창조물이 다시 그를 만져 그를 강하게 합니다. 한 사람은 인간처럼 그에게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의 불일치나 혼란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그와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많을 것이고, 이 장면에 인물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매우 명확하고 메시지 자체도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존재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신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왜 지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왜 왔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페르시아 왕자와 싸우러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 보니, 그리스 왕자가 곧 오리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책 곧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당신들의 왕자인 미카엘 외에는 이 세력에 맞서 나와 굳건히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일어나 그를 격려하고 보호하였느니라 좋아, 여기서는 많은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단위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메시지는 시급합니다. 그 사람이 말해요, 내가 왜 왔는지 아세요? 비록 제가 정말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토록 중요한 투쟁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가 말하려는 것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마이클에 대한 언급은 약간 제쳐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왕자인 마이클 외에는 이 세력에 맞서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여기로 오는 동안 마이클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진리의 기록이나 진리의 책에 대한 언급은 7장에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여러 책을 접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나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다른 책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지만 이 책은 다른 책입니다.

이 책에는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역사의 노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적어도 바빌로니아인들에게 다가오는 해의 진로를 알려주는 운명의 석판으로 알려진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책에는 그가 알리려고 온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또 다른 것을 제쳐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다리우스의 첫해에 마이클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천사의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 메대 사람 다리우스의 첫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철자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39년에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우스와 다리우스를 대표하는 하늘의 군대가 왜 싸우고 있었을까요? 특히 치열했을 수 있는 어떤 투쟁이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늘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Darius의 첫해에 Michael이 도움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진리의 책, 즉 진리의 기록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긴 섹션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2장의 첫 절과 처음 네 절을 제외한 11장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접근할 것입니다.

천사가 이 계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가 다루게 될 예언적 관심의 다섯 가지 영역, 즉 다섯 가지 특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강한 왕, 강한 왕이라고 부를 그리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해,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것이다. 그는 단지 비열한 사람으로 불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버전에서는 그를 경멸할 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높이는 왕에 관해 매우 많이 논의되고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섹션에 도달하면 11:36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을 추적해 왔다가 상황이 바뀌고 갑자기 역사에 적용되는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틀렸거나, 아니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사후 예언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36절에 도달할 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훨씬 앞부분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제가 설명하기보다 여러분을 더 혼란스럽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어쨌든 잊어버렸을 게 분명합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예언, 즉 사건 이후 예언은 묵시문학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의 질문은 그 장르나 묵시문학의 요소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다니엘서의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사후 예언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르면 안티오코스를 박해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2세기 익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 예언을 기록한 구체적인 날짜는 167년이다.

167년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때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선지자를 넣을 것입니다. 비록 이 관점에서 보면 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채택한 익명의 2세기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그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했지요? 음, 장르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소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은 억압받고 있으며, 그가 쓰고자 하는 목적의 일부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과정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상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가 미래의 역사 과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이 결정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것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돌아가서 유배 당시부터 매우 존경받고 존경받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짜 다니엘. 역사적인 다니엘.

그리고 그 역사적인 다니엘이 그의 입이 되거나 다니엘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다니엘의 이름으로 말해지고 있지만 2세기에 여기 아래에서는 동의어인 유대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전하는 이 예언은 확실히 이 시점까지의 시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 제국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 등장하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예언을 그대로 실현할 것입니다. 왜? 글썄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마치 자신이 여기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그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진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목소리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했으며 11장의 이 예언에서 우리는 놀랄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그것을 겪을 때 그것은 공백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언에 역사적인 이름을 넣을 수 있으며 마치 역사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 예언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상해요. 자, 묵시문학이나 그 장르에서는 이상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상 이 부분에 도달하면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룹니다. 내 말은, 그는 이 역사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 전체 장르가 실제로 이 신비한 사람,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의 이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는 11장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 사전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 저자는 그에게 고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약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신에 다리우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실제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내가 이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 사람의 역사관에 대한 정말 썩은 견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하고 네 번이나 범한 성경 저자들에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를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네 번이나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요점을 벗어났습니다. 나는 옆으로 쫓겨난다.

좋아요, 그래서 그는 이 지점을 바로 여기까지 얻었고 지금은 11시 36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을 높이는 왕인 안티오코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역사적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티오코스에 대해 예언하는데, 그곳에서 안티오코스가 죽을 것인데, 그러면 역사적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이 시점부터 그는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단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에서는 그가 옳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오류를 허용합니다.

좋아요, 이것이 ex-event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당신이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학자이고 이 견해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당신의 견해와 성경의 권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장르의 사용이 그 모든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꽤 복잡해집니다. 몇 가지 매우 근본적인 질문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외에도, 이것이 바로 이 견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장르가 성경에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남겨두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장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문학의 어떤 측면이나 글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전 예언입니다. 이제 예언으로 돌아갑시다.

11절, 바사 왕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보라, 페르시아에서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사분의 일이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부를 통해 강해지자마자 그는 그리스 왕국에 맞서 제국 전체를 선동할 것입니다. 여기에 네 명의 왕이 있다는 사실은 페르시아 왕들의 수를 어떻게 셀 것인지에 관해 많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의 숫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3개 더하기 1개가 더 있는데, 이는 실제로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12명 정도의 왕이 있지만 모두입니다.



자, 이것이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가 강한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즉 그리스 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람, 여러분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어로 말하겠습니다. 강력한 그리스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는 큰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자마자, 그의 왕국은 분열되어 사방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가 휘두르는 권세에 따라 분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주권은 뿌리째 뽑혀 그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왕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 강력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며 336년에 권력을 잡고 동쪽으로 전례 없는 군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0년 안에 그는 터키에서 인도까지 행진했고, 그 시점까지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330년에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망하고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분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겪었던 역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유일한 사람들과 이 계시가 관심을 가질 유일한 사람들은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예언에서는 그들을 북방 왕, 셀레우코스,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방과 남방의 왕들이요. 이제 제가 시작하는 이 섹션은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의 수백 년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내가 멈춰서 당신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면, 당신은 아주 빨리 눈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쨌든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으로 당신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제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괜찮은 논평을 선택하면 여기에서 모든 역사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일종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따라 몇 가지 공백 채우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그러면 남방 왕, 즉 프톨레마이오스가 그의 방백 중 한 명인 셀레우코스와 함께 강해질 것이며, 그는 그를 다스리고 통치권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영토는 참으로 큰 지배권이 될 것입니다.

몇 년 후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남방 왕의 딸, 즉 프톨레마이오스, 즉 베레니케는 평화로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북방 왕(그 때는 안티오코스 2세)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베레니케,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권력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안티오코스 2세도 그의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베레니스는 그녀를 데려온 사람들, 즉 그녀의 시종들과 함께 포기될 것이고, 그녀를 낳은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일 것이고, 그 당시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손 중 하나인 그녀의 혈통, 즉 베레니스의 혈통이 그의 자리, 즉 그녀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될 것이며 그들의 군대, 곧 셀레우코스를 치러 올 것이며 북방 왕 셀레우코스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들을 처리하고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과 그 부어 만든 형상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귀중한 그릇들을 이집트로 사로잡아 갈 것이며, 그는 몇 년 동안 북방 왕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 즉 북방 왕, 이때쯤에는 셀레우코스 2세가 남방 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몇백년.

그런 다음 우리는 북방 왕의 공적에 대한 몇 가지 자세한 설명이나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안티오코스 3세의 공적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 우선 셀레우코스 2세의 아들들이 수많은 큰 군대를 동원하여 모을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인 안티오코스 3세가 계속해서 오고 넘쳐 흘러 통과할 것입니다. 그의 요새까지 다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는 분노하여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와 싸우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후자인 안티오코스 3세가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지만, 그 무리는 전자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무리가 사로잡힐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수만 명을 엮드러지게 하여도 이기지 못하리라 북방 왕을 위하여 안티오코스 3세는 다시 이전의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며, 몇 년 후에는 대군과 많은 장비를 가지고 전진할 것이다.

이제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를 대적할 것입니다.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도 그 환상을 이루려고 스스로 높아지려니와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 후에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가 와서 포위용 경사로를 쌓고 견고한 성읍을 함락시킬 것이며 남방 군대인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는 그들의 입장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의 정예 부대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설 힘이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말은 대항할 수 없이 숫양과 염소와 작은 뿔처럼 들린다는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맞서는 안티오코스 3세는 그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 아마도 스코푸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코스 대왕이 그를 대적할 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멸망을 손에 쥐고 아름다운 땅에 한동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자신의 왕국 전체의 힘을 사용하여 평화 제안을 가져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에게 여자의 딸을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를 지지하지도 않고 그의 편에 서지도 않을 것이다.

그 때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얼굴을 돌려 많은 사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휘관, 곧 로마 지휘관이 그를 비웃는 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그의 경멸에 대해 그에게 갚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땅의 요새들로 얼굴을 돌릴지라도 넘어지고 넘어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처한 결론은 안티오코스 3세가 187년에 로마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벨 신전을 약탈하려다가 암살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안티오코스 3세에서 벗어나 안티오코스 4세가 있는 곳으로 막 이사하려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기 중앙에 셀레우코스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체 이름이죠. 그러므로 그의 자리에 안티오코스 3세 대신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그의 왕국의 보석을 통해 압제자를 보낼 셀레우코스 4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며칠 안에 그는 화를 내거나 전쟁을 해서 산산조각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는 잠시 기다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비열한 사람이 일어나 왕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즉, 그는 왕좌에 오르는 길을 일종의 위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온한 때에 와서 음모를 꾸미고 왕국을 장악할 것입니다.

넘치는 세력이 그 앞에서 휩쓸려 흩어질 것이며, 또한 유대 대제사장을 가리킬 수 있는 언약의 왕도 그러할 것입니다. 언약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행할 것이며, 소수의 사람들로 올라가서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평온한 때에 그는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한 곳에 들어갈 것이고, 그의 조상이나 그의 조상들이 결코 하지 못한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리품과 전리품과 소유물을 분배할 것이며, 요새를 공격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동안만일 것입니다. 그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를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방 왕이 싸우려고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소집할 것이나 그가 견디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칠 계략이 음모를 꾸밀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의 좋은 음식을 먹는 자들은 그를 멸망시킬 것이며 그의 군대는 넘쳐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안티오코스 두 왕은 마음이 악한 일로 기울어져 한 식탁에서 서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맹을 맺으려고 앉아서 서로를 속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은 정해진 시간에 아직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안티오코스 4세는 많은 약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행동을 취한 다음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한이 되면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갈 것이나 이번 마지막 때에는 그 일이 전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깃딤 배 곧 로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므로 그가 낙심하리라 그리고 돌아와서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167년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언약을 향하여 진노하여 행동하시며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에게서 세력이 일어나 성소의 산성을 더럽히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는 언약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드러운 말로 돌이켜 경건치 아니하게 하려니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힘을 발휘하여 행하느니라. 백성 중에 통찰력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달을 것이나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에 쓰러지리라.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에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주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위선에 가담하리라.

통찰력 있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연단하고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려고 넘어지나니 이 일은 아직 정한 때에 이르느니라. 좋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167세에 있다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몇 가지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 있어서 미안해요. 2년 뒤인 167년 안티오코스는 다시 이집트를 침공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키티(로마인)은 그를 도와달라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요청에 따라 알렉산드리아로 왔고, 안티오코스는 로마 사절에게 겁을 먹고 겸손해졌으며 분노하여 물러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야손이라는 지도자 아래 유대인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메넬라오스라고 불렀던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인 토바이드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아손과 그의 동료들은 안티오코스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러 왔습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는 매우 살아 있었고, 그는 167년 이집트에서 돌아오면서 이 반란을 자신의 공격과 통제권 회복의 구실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절을 사칭하여 예루살렘에 보냄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누리려고 했으나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공격하여 그 성을 약탈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카베오서의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학살당했고, 유대인 상인들은 안티오코스의 그리스화 정책을 지지한 대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167년에 안티오코스는 강제 헬레니즘화를 포고하여 예루살렘을 그리스 도시인 그리스 폴리스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선언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유대교의 종교 관습을 불법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성경 소유, 안식일 준수, 여러 절기 준수, 아침 저녁 제사 등은 모두 금지된 것이며,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전은 황실 숭배와 왕 숭배가 제도화되고, 신전 안에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이나 우상이 세워지면서 이교화되었다. 아마도 그것은 황폐화를 초래하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혀 예배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찰은 잡초가 무성해 공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유다 전역에는 이교 제단들도 세워졌습니다.

돼지와 다른 부정한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졌는데, 이 전체 모독은 예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예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세워질 또 다른 가증한 것을 예표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습니다. 안티오코스과 그의 예루살렘 공격을 둘러싼 이 모든 사건은 유대인들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긴 구절에는 언약을 어긴 사람들, 즉 안티오코스의 감미로운 말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길이 더 낫다고 믿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자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 안티오코스를 단호히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순종하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 율법 때문에 순교합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한 셀레우코스 왕조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 편에 섰던 동포들로부터 위협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곳에서 그것을 얻고 있습니다.

예언에 언급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귀환할 때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박해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고난과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겠다는 말은 마치 농담에 가까운 말일지도 모른다. 네, 그들은 마카베오 반란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자들과 위선에 가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편에 섰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는 관점에 따라 그들 또는 국가를 다시 정화하고 세련시켰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본문의 이 시점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것이 진짜 예언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매우 어려운 부분에 도달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요? 성서에 나올 수 있는 장르인가요?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설명된 사건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안티오코스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Tremper Longman은 이 섹션에서 훌륭한 작업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인지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방 왕과 북방 왕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왕이 생겼어요.

어느 왕인가요? 그리고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인간 작가인가 아니면 신적인 작가인가? 그러면 이 선지자는 자신이 먼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가 볼 수 없는 망원경입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사후적 아이디어를 고수하는 비판적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본문에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왕이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암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장면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몰락을 기대하는 상상력이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의 문제점은 물론 이것이 사후 예언과 선지자가 일을 잘못하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해석가, 전통적인 해석가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11장 36절부터 37절까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의 역사적 인물에서 종말론적 인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6절부터 45절까지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제롬 시대 이후로 기독교 해석자들은 이 구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모든 기독교 통역사가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통역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사건을 망원경으로 보는 예언의 경향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즉 우리가 먼 미래에 있다는 명확한 징후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Longman은 이 섹션에서 안티오쿠스의 주현절에 대한 언급을 보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보다 더 큰 특징을 취하고 있으며, 신약 성서에 비추어 살고 있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을 예상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ngman이 여기서 보는 증거는 그가 실물보다 더 큰 우주 언어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역사적 참고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특히 40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코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만 붙은 왕은 그 이전에는 안티오코스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북방 왕이라고 불리므로 다른 지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물론 12장에 이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드윈, 제가 이전에 논평했던 조이스 볼드윈은 비록 다니엘 11장이 안티오코스 4세에서 그 성취를 찾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요약하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직접적인 지시 대상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섹션의 안티오코스 4세를 넘어 보다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도록 이끌 수 있는 다른 증거는 다른 장의 일부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7장으로 돌아가면 작은 뿔이 있고, 8장에는 또 다른 작은 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차 올 통치자가 있고, 불법의 사람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제 장 외부의 일부 문제는 보다 보수적인 해석이나 전통적인 해석에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그러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요, 36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모든 신보다 높이고 큰 일을 발하여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Tremper

Longman이 말하는 일종의 우주 언어입니다. 진노가 그칠 때까지 그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는 그 조상의 신들과 여자들의 욕망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신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그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요새의 신을 존경할 것이다. 그는 금과 은과 값진 돌과 보물로 그를 공경할 것이다.

그는 이방 신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강력한 요새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주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시며, 값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 프톨레미가 그와 충돌할 것이요, 북방 왕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에게 돌진할 것인데, 그가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침수하여 건너갈 것이다..

그도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리니 많은 나라가 무너지려니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선두자들은 그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후에 그가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그가 애굽의 금은 보화와 모든 보물을 손에 넣을 것이며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니라 뒷굽.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소문이 나서 그를 혼란하게 할 것이며, 그는 큰 분노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가 바다와 아름답고 거룩한 산 사이에 왕궁의 장막을 치리라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이제 그 때에 네 백성의 아들들을 호위하는 큰 군왕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전에 없던 환난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나라가 있었느니라.

그 때에 네 백성 곧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과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자는 하늘의 광채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에게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좋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상급과 부활과 형벌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큰 약속입니다. 이 부활의 본질은 논의되고 논의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구약에서 실제 육체의 부활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그림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부활의 개념은 꽤 어둡습니다.

그것이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부활하는 사람의 정확한 성격과 그 수,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 기간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인지. 그것에 관한 모든 종류의 문제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니엘의 원래 청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부활할 때까지 그 보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는 사람이 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곧 마지막 때에는 궁극적으로 상이 있고 궁극적으로 심판과 형벌이 있느니라. 빛나는 별들과 하늘의 밝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좀 더 비유적인 언어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저자가 우리가 죽으면 천사나 별이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아,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을 감추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게 될 것이며 지식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나 다니엘이 보니 또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또 얼마나 긴 언어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과 왼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루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의 세력을 꺾는 일을 마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이 사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아 가라사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정련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악하게 행할 것입니다.

악인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통찰력이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여기 우리는 은행과 함께갑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계속 기다려서 1,335일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너는 끝까지 가라. 그러면 당신은 마지막 때에 당신에게 할당된 몫을 위해 안식에 들어가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평론가들은 이 두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마도 옵션에 대해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손을 내밀고 이것이 미스터리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다른 평론가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읽은 것 중 제가 읽은 최고의 제안은 Carol Newsome입니다. 설명에 함께 넣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언급할 것입니다. 그녀는 숫자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의 다른 기간과 연결되는 패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론은 그것이 상당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책에

나오는 다른 상징주의와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한 마지막 말과 일치하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지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적인 책의 끝에 있는 도전적인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표면만 긁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기 시작할 수 없는 장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예언과 환상이 역사적 배경을 초월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그 역사적 배경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다니엘 자신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을 해석해 줄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괜찮았으며, 그의 하늘 방문객들은 그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길을 가거라, 다니엘.

이것이 우리를 책의 끝으로 이끈다. 나는 당신이 다니엘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에 대한 식욕을 자극하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당신의 역사를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6회기, 다니엘 10-12장,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입니다.